

## 욥의 진실한 신앙

신학박사 조 덕운

*[욥기 19:25-27]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26 내 살갓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간주되며, 그가 살았던 우스 땅은 오늘날 이란, 또는 남시리아, 또는 아라비아, 또는 요르단 등 여러 곳 중의 한 곳으로 짐작됩니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그의 친구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신자들이었으므로 참된 여호와 신앙이 아직 존재하던 대홍수 이후의 시대로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의 기록에 욥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욥은 아브라함보다 앞선 세대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욥기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사탄이 아직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기 전으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세상의 여러 곳을 순방하면서 세상을 통치하는 역할을 수행하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편 82 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임무를 정해진 수천사들에게 부여하셨고, 그들의 잘못된 통치 행위를 질책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 장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건데, 사탄은 그중 한명이었거나 그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큰 천사이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욥기 1:7-8]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8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욥의 진실한 신앙을 높이 보시고 사탄에게 그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가 물어보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과 보호하심에 조건부적인 신앙이라고 비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 하여금 욥의 모든 축복을 제거하고 그의 몸까지 견디기 힘든 나쁜 상태로 만들어서라고 그의 신앙의 진실함을 입증해 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은 신자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기 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비판하고 고소하는 존재이었던 것입니다 [계 12:10]. 결론적으로 욥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매우 고통스런 경험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참된 신앙을 저버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큰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앞에서 본 19 장의 구절들을 보면, 욥은 자신의 구속자, 즉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서실 것이며, 그 때에 자신의 썩은 몸이 부활하여 주님을 볼 것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부활과 종말에 대한 분명한 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욥과 같은 분명한 영적 시력과 신앙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26 내 살갓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이다.

또한 욥은 의인과 악인들이 모두 멸망의 날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욥기 21:30] 곧 사악한 자가 멸망의 날까지 남겨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진노의 날로 끌려 나가리이다.

욥은 또한 솔로몬이 잠언을 쓰기 훨씬 전에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시력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견지한 훌륭한 신자이었습니다.

[욥기 28:28]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욥은 비록 자신이 당하는 처참한 불행이 자신의 악행의 탓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이 정금처럼 순전하게 보전되기를 바랬습니다.

[욥기 23: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지만 그 경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탄원했습니다. 우리 누가 욥과 같은 힘든 고통을 당하면서 입에 불평이 나오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변명하거나 정당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티끌 가운데 회개하여 겸손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욥기 42:5-6]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6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앞으로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며, 악이 선을 이기며, 사탄을 섬기는 악인들이 정권을 휘둘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도 과연 저 옛날에 참된 신앙을 견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던 욥과 같이 참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37-39]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하신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어 믿음 지키기가 힘겹게 느껴지고 있는가요?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거나 죽어서 땅에 묻혀 있어도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우리가 일어날 것이며, 구름 속에서 주님을 뵈고 혼인 잔치에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참된 크리스찬들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모두 욥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 따라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순전한 금과 같은 신앙을 견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후원에 감사합니다:

PO Box 501, Cross Junction, VA 22615

Or Paypal to [dwcho4771@gmail.com](mailto:dwcho4771@gmail.com)

한국: Shinhan Bank 110-008-655930 [조덕운]